KIA 타이거즈가 상위권 도약을 위해 KT·삼성과 원정 6연전을 치른다. 지난 1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과의 더블헤더 2차전에서 승리한 KIA 선수들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안정감 찾은 타이거즈, 상위권 도약 '가속 페달'

타이거즈 전망대

공·수·주 변화의 한 주 보내며
지난주 두산전 스윕 등 5승1패
이번주 KT·삼성과 원정 6연전
"화요일 전승·수요일 부진 탈출"

분위기를 탄 KIA가 상위권과의 격차 줄이기에 나선다.

4연승으로 공동 4위에 오른 KIA 타이거즈가 원정 6연전 길에 오른다. 수원으로 가 KT 위즈와 주중 3연전을 치르는 KIA는 이후 대구에서 삼성을 상대로 주말 3연전을 펼친다.

KIA는 지난주 가장 뜨거운 팀이었다. 홈 6연전을 치른 KIA는 5승 1패를 수확하면서 22승 22패 승률 '5할'을 맞췄다.

쉽지 않은 상대에 거둔 승리라 더 의미가 있다.

불펜 위기를 겪고 있는 KIA는 주중에는 '타격의 팀'이자 공동 2위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거뒀다. 그리고 1위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스윕승을 거두고 광주를 찾은 두산 베어스의 상승세도 꺾으면서 분위기 반전을 이뤘다.

'주장' 나성범에 이어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까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만든 결과라서 의미가 있다.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기대감을 키우게 한다.

선발진의 안정감이 눈에 띈 한 주였다.

첫 4일턴 일정을 소화한 김도현은 13일 롯데전 5.1이닝 1실점(비자책점), 18일 두산전 6이닝 3실점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강렬하면서 꾸준한 활약으로 토종 에이스로 자리한 김도현에 이어 마운드 '최고참' 양현종도 초반 부진을 털어내고 매서움을 더해가고 있다. 양현종은 17일 두산을 6이닝 1실점으로 막고 시즌 2승에 성공했다.

여기에 선발로 다시 마운드에 오른 윤영철도 기대감을 키우는 피칭을 선보였다. 4월 18일 두산전 이후 거의 한 달만인 지난 14일 롯데를 상대로 선발 등판을 한 윤영철은 4이닝 3실점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5회까지 책임지지는 못했지만 오랜만의 선발 등판에서 달라진 구위와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본격적인 시즌 출발을 알렸다.

외국인 '원투펀치' 제임스 네일과 아담 올러도 각각 7이닝과 6이닝을 소화해주면서 선발진이 순조롭게 돌아갔다.

기복 많았던 불펜진도 마무리 정해영을 중심으로 안정세로 접어든 모습이다. 정해영은 지난주 4경기에 출격해 모두 세이브를 추가했다. 특히 17일 두산과의 더블헤더에서는 1·2차전 모두 출격해 선동열의 132세이브를 넘어 134세이브째를 수확,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 세이브 주인공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고민 많던 외야에 김호령의 활약도 반갑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수비력을 가진 김호령은 주말 3경기에서 3개의 2루타도 기록하면서 달라진 타격을 보여줬다. 특히 18일 연장 10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우중간 2루타를 기록하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오선우에 이어 김호령까지 외야의 깜짝 활약으로 KIA가 부상 공백을 지우고 있다.

뛰는 야구에도 시동이 걸렸다. 박찬호를 중심으로 최원준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상대를 괴롭히고 있고, 김규성도 3루 도루로 상대의 허를 찌르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팀의 초반 부진으로 제동이 걸렸던 KIA의 발이 빨라지면서 상대의 실수도 이어지고 있다.

공수주에서 변화의 한 주를 보낸 KIA는 윤영철을 앞세워 화요일 전승 잇기에 나선다. KT에서는 5일 NC전에서 임시 선발로 나섰던 우완 조이현이 두 번째 등판을 준비하고 있다.

올 시즌 화요일 6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기록한 KIA가 상승세를 이어 5연승을 이루고, 수요일 부진(1승 7패)에서도 탈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주효상·유지성 "기회 오면 잡는다"

더블헤더 특별엔트리 포함
박빙 승부에 출전 미뤄져

포수 주효상

투수 유지성

팀의 승리에 박수를 보낸 포수 주효상과 투수 유지성이 '다음 기회'를 준비한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1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더블헤더 일정을 소화했다. 야수진의 부상과 불펜의 부진이 겹치면서 힘겨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하루가 예상됐지만, 이날 KIA는 두 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그리고 분위기를 이어 18일에도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첫 스윕승과 함께 4연승을 이뤘다.

KIA는 더블헤더 강행군을 위해 특별 엔트리로 포수 주효상과 투수 유지성을 콜업했었다.

이범호 감독은 더블헤더 운영을 위해 또 퓨처스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콜업했다. 주효상에게는 2023년 5월 14일 1군 말소 이후 첫 1군 등록이었던 만큼 더 반가운 콜업 소식이었다.

하지만 두 경기 모두 박빙의 승부가 전개되면서 주효상과 유지성은 아쉽게 그라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경기는 뛰지 못했지만 팀 승리를 응원한 두 사람은 다음 기회가 오면 꼭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응원가 한번 듣고 싶었는데 아쉽다"며 웃은 주효상은 "게임 나가면 좋았을 것인데 그래도 감독, 코치님들이 안 잊고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웃음). 요즘 수비가 좋다. 도루 저지를 거의 다 하고 있다. 방망이도 계속 감 올라오고 있다. 좋은 모습 보여주니까 좋게 봐주신 것 같다. 잘 준비해야 한다. 준비 잘하고 있다가 기회 오면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유지성도 팀이 좌완 불펜 고민 중인 만큼 잘 준비하면서 콜업을 기다리겠다는 각오다.

유지성은 "올해 처음 1군에 왔는데 다시 한번 시합 분위기를 느끼고, 형들 불펜에서 준비하고, 시합나가고, 던지고, 관리하는 모습 보면서 경각식을 가지게 됐다"며 "타자들하고 승부하는 능력이 좋아졌다. 변화구 구사도 좋아졌다. 그런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열심히 해서 다시 엔트리 등록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제2의 오타니' 광주일고 김성준 MLB 텍사스 입단

구단, 16억8000만원에 계약
"월드 클래스에 인성까지 훌륭
투·타 겸업 선수로 육성할 것"

투타를 겸업하는 제2의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꿈꾸는 광주일고의 투수 겸 내야수 김성준(18·사진)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 유니폼을 입었다.

텍사스 구단은 19일 김성준을 국제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투우타인 김성준은 고교야구에서 투타를 겸업하고 있다.

지난해 투수로는 14경기 3승 1패, 평균자책점 2.65를 찍고, 타자로는 28경기 타율 0.307, 1홈런, 8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831을 기록했다.

김성준 영입에 앞장선 해밀턴 와이스 텍사스 국제 스카우트 이사는 "월드 클래스의 재능을 가진 선수이자, 인성까지 훌륭하다. 유격수 수비와 타격에서도 큰 인상을 받았고, 마운드에서 퍼포먼스 역시 뛰어났다"면서 "구단은 그를 투타 겸업 선수로 육성할 확고한 계획을 가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성준이 도전에 필요한 자질을 갖췄다고 믿는다. 중요한 건 우리 구단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닌 선수라는 점이다. 그는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재능을 지녔고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격도 갖췄다"고 덧붙였다.

텍사스 구단은 김성준이 현재는 타자보다는 투수 쪽 재능을 더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MLB닷컴은 "강력한 패스트볼과 두 가지 수준급 변화구, 헛스윙을 유도할 스플리터를 던진다"고 소개했다.

김성준이 투타 겸업을 준비하려면 다른 선수보다 두 배 이상 노력을 쏟아야 한다.

와이스 이사는 "음식과 언어, 지도 방식 등 모든 것이 다를 것이다. 우리는 김성준이 성공하도록 환경을 만들 것이다. 향후 1년은 준비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투타 겸업으로 성공하려면 결국 의지가 중요하다. 진심으로 원하느냐가 중요하다. 김성준은 이러한 결정의 무게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선수이며, 적응 과정을 이겨내면 반드시 재능을 꽃피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텍사스 구단이 김성준 입단을 발표한 뒤, 김성준의 국내 에이전시인 리코스포츠는 자세한 내용을 전했다.

리코스포츠에 따르면, 김성준의 입단 계약금은 120만달러(약 16억8000만원)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산악인들 '대통령기 전국대회' 선전

금메달 3개·은메달 2개 획득

광주·전남 산악인들이 '제57회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에서 선전했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울산시 울주군 봉화산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광주·전남 산악인으로 이뤄진 전남산악연맹 소속 14개팀(대학부 11팀, 일반부 1팀, 장년부 2팀)이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OB팀이 남자 일반부 1위를 차지했다.

남자 대학부에서는 전남대산악회1팀이 1위, 전남대산악회3팀 2위에 올랐다.

여자대학부에서도 광주전남학생 산악연맹팀이 금메달을, 전남대 산악회 4팀이 은메달을 획득했다.

대회는 3인 1조로 구성된 참가자들이 경기 구간을 이동하며 산악 독도(지형도, 나침반, 고도계를 사용해 지형을 해석하고 경로를 찾아가는 것), 장비 점검, 응급처치, 암벽등반, 매듭법, 산악안전 등 등산 전반에 대한 과정을 거쳐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야별로 1등부터 10등까지 팀 종합점수를 더해 연맹별 순위를 매겨 종합 우승 팀이 선정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